

# 클레오파트라도 반한 ‘여왕의 과일’…해남 무화과 나왔다

시설 재배로 당도 높고 깨끗해 최고품질 인정…12월까지 수확  
생과·잼·말랭이·식초·즙 제품 전국 소비자에 ‘당일 배송’ 가능

“여왕의 과일 무화과 수확합니다.”  
땅끝 해남의 특화작목인 시설 무화과 수확이 본격 시작돼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시설무화과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 외관이 깨끗하고 당도가 높아 노지 무화과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무화과는 일반적으로 8월 중순부터 11월까지 노지에서 수확되지만, 시설 재배 시에는 수확 시기를 7월 중순부터 12월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관이 어려운 신선한 무화과를 오랫동안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30농가, 31ha면적에서 시설무화과를 재배할 예정으로 해남에서 생산되는 시설 무화과는 최신 하우스 시설에서 상자를 이용한 수경재배로 생산되기 때문에 껍질까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높은 당도와 치밀한 조직으로 최고급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대부분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고 공동작업을 통해 당도와 무게 등 규격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출하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수확된 무화과는 농가 직거래 및 해남군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생과뿐 아니라 잼, 말랭이, 식초, 즙으로도 가공해 판매한다.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먹어 ‘여왕의 과일’로 불리는 무화과는 알칼리성 건강식품으로 항암효과가 주목받고 있으며 풍부한 섬유질과 단백질 분해효소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소화불량과 노화방지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식물성 콜레스테롤과 칼륨이 풍부해 혈관을 막는 노폐물을 제거하며 고혈압과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시설하우스에서 깨끗하게 재배된 해남무화과는 노지무화과에 비해 품질이 매우 뛰어나 해남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인기에 판매되고 있다”라며 “유통·보관이 어렵던 시절에는 남부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한 과일이었지만 지금은 당일 배송으로 전국 어디서나 만날 수 있으므로 맛있는 무화과 많이 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 시설무화과는 노지에 비해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 외관이 깨끗하고 당도가 높아 좋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해남 시설무화과. <해남군 제공>

해남군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 등 주력

해남군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됐다.  
지난 2019년 평생학습도시로 최초 지정된 해남군은 이번에 재지정됐다.  
해남군은 평생학습 확대와 내실있는 발전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다.  
재지정 평가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 4년 이상 된 전국의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평생학습 추진체계, 사업 운영·성과, 특성화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전국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면과 대면 평가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군은 군민 평생학습 확산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교육재단을 설립해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군은 지역 환경 분석과 의견수렴을 통해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모사업 유치, 학습공간 확충,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 등에도 주력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우승희 영암군수, 6대 현안 국비 요청 ‘발로 뛰다’

세종 지방시대위 방문…‘국립바독연수원 조성’ 지원 등 요청

우승희 영암군수가 중앙부처·관계기관을 잇따라 찾아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영암군에 따르면 우 군수는 최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관련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영암군의 대선 6대 지역공약은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영암 국립바독연수원 조성 ▲대한민국 국립공원엑스포 벨리 ▲그린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천년마한 문화융합사업 ▲영산강 하구생태계 복원사업 등이다.  
우 군수는 문화체육관광부도 방문해 영암 국립바독연수원 건립 당위성을 밝히고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도 찾아 ▲영암 수소도시 조성사업 ▲2026 국립공원 박람회 ▲월출산 스카이

전망대 등 지역 전략산업의 국가 예산 반영 등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대불산단 RE100산단 지정, 에너지신도시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조성사업’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우 군수는 진성준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국정과 지역 핵심사업을 연결해 국비



우승희(오른쪽) 영암군수가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가 영암 발전에 투입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 목포 ‘시민의 상’ 후보자 추천하세요

시, 9월 1일까지 6개 부문 모집

목포시가 제63회 시민의 날을 맞아 올해 ‘시민의 상’ 수상 후보자와 심사위원을 다음 달 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시민의 상은 목포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내·외국인을 발굴·예우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역사회봉사, 교육문화, 경제, 체육, 효행, 특별활동 등 6개 부문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시는 접수된 후보자 가운데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 1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후보자는 목포시 의회 의원, 동장, 기관·단체장의 추천, 또는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시는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 함께 공개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10

명이다. 경제계, 교육·문화계, 체육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인사가 대상이다. 심사위원 신청도 후보자 추천과 동일하게 내달 1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에 필요한 추천서와 서식은 목포시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종 수상자는 내달 중 구성될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심사위원회는 목포시의회 의원 5명, 분야별 전문가 9명, 공개모집 심사위원 10명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10월1일 제63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개최된다.  
한편 목포 ‘시민의 상’은 1963년 첫 시상 이후 현재까지 106명과 4개 단체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목포시 연탄쿠폰 접수

29일까지, 에너지 취약계층

목포시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연탄쿠폰 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시행하는 연탄쿠폰 사업은 가구당 47만 2000원을 지원,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목포시에 거주하면서 가정난방용

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주민등록본상 만 65세 이상인 자·장애인·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구·소년소녀가장)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가구나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바우처) 수급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된 가구는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 진도 ‘폼바’ 웃음 치유 공연…어르신 ‘힐링’

진도군보건소 “우울감·고립감 예방…생명존중 문화 확산되길”

진도군은 진도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난 달 28일 노인복지관에서 폼바 명인을 초청해 어르신들을 위한 웃음 치유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은 자살 예방과 우울증 예방을 주제로 어르신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상 이야기와 유쾌하게 풀어진 연극 ‘폼바’로 공연장을 찾은 약 200명의 어르신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소외되기 쉬운 노년기에 정서적 외로움과 마음의 아픔을 웃음과 위로로 어루만지며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전하는 시간이 됐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진도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공연을 통해 노년층의 우울감과 고립감을 예방하고 자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생명

존중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린다는 방침이다.  
진도군보건소 노인건강과 관계자는 “정신건강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삶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김희수 진도군수가 지난 달 28일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열린 웃음 치유 ‘폼바’ 공연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 완도 해조류,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브랜드 ‘대상’

지역 특산물·해조류 부문  
친환경 인증·이력제 등 성과  
신우철 군수 “글로벌 산업 육성”

완도군이 올해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 특산물·해조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은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후원한다. 소비자 조사를 통해 품질, 신뢰도, 만족도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군은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등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다. 그동안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해조류를 바탕으로 고유 브랜드를 육성해 왔다.  
특히 친환경 인증, 해조류 이력제, 위생관리 시스템 등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과학적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또 해조류 분말, 추출물, 기능성 제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해 내수와 수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청(NASA)은 완도 해조류 양식



장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완도 해조류를 기후 변화 대응 유망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후 완도 해조류가 미래 먹거리이자 블루카본으로 주목받으며 국제적 관심이 높아졌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수상은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완도 해조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먹거리임을 증명한 값진 성과”라며 “완도 해조류산업을 지속 가능한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 섬 숲 경관 복원 마무리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 13ha…난대·상록 활엽수 1만3천그루 식재

완도군이 최근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 13ha 산림에 ‘2025 섬 숲 경관 복원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훼손된 도서 해안 산림이나 기후변화로 식생이 쇠퇴한 섬 숲을 대상으로 지역에 적합한 난대·상록 활엽수림을 심어 복원하는 프로젝트다.

완도군은 총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해 지역 향토수종인 황칠나무, 동백나무, 완도호랑가시나무 등 9종의 난대 상록 활엽수 1만3000여 그루를 식재했다.  
이어 향후 10년간 모니터링과 유지·관리를 통해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저항성

증가 등 산림 식생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주관 ‘2026 대규모 산림 복원사업’ 대상지로는 완도군 고금면 청용리가 선정돼 총 62ha 규모의 난대 상록 활엽수림이 조성될 예정이다.  
박은재 완도군 산림휴양과장은 “산림 복원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섬 지역 경관 개선과 생태 관광자원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